

# 세계의 魚粉

## 수급동향

농협중앙회 조사부

1977년도 세계의 어분 및 어유생산량은 76년도보다 각각 11%, 7%가 감소하였으며, 1978년도에도 계속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1977년도 어분수출량은 76년도보다 9% 감소한 반면 어유수출량은 76년도대비 2% 증가하였다.

한편, 세계의 1978년도 어분 및 어유수출량도 77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1978년 1~4월중 세계의 어분 및 어유생산 수출실적을 감안하여 추정된 것이다.

최근 세계의 어분 및 어유의 생산, 수출 및 가격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분]** 1977년도 세계 어분생산량은 76년도보다 11% 감소한 4.0백만M/T을 나타냈다.

이와같이 세계의 어분생산량이 감소한 원인은 세계 최대어분생산국인 페루의 어분생산량이 대폭 감소한 때문이다.

즉, 페루의 1977년도 어분생산량은 76년도의 886천M/T에 비해 44.4% 감소한 493천M/T으로 극히 저조한 실적을 나타

냈다.

또한 페루는 지금까지 어분원료의 주종을 이루었던 앤초비의 어획고가 감소되어 고등어·정어리 등 타어종을 포획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1976년도 어분생산량은 9년래 최고기록인 454천M/T에 달하였는데 이는 200해리 어로보호수역설정과 연안의 Capelin가 풍부한데 기인된다.

아이슬랜드 역시 200해리 어로수역설정의 영향으로 1976년도 어분생산량은 크게 증가하였는데, 1977년도에는 76년대비 무려 56% 증가한 170천M/T에 달하여 1966년 이래 최고수준을 기록하였다.

칠레의 1977년도 어분생산량은 앤초비의 포획이 순조로와 76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250천M/T에 달하였다.

덴마크의 1977년도 어분생산량은 청어의 포획금지로 76년도보다 4% 감소하였으며, 남아연방의 1977년도 어분생산량은 76년도보다 19% 감소한 171천M/T으로 격감하였는데, 이는 연안어족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 특집

한편 세계의 1977년도 어분수출량은 76년도보다 9% 감소한 1.8백만M/T 이었는데 이는 세계 최대어분수출국인 페루의 1977년도 어분수출량이 76년도보다 격감한 200천M/T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및 칠레의 1977년도 어분수출량은 76년도보다 다소 증가하였으나 페루의 수출량 감소를 상쇄시킬 만큼 충분한 양은 되지 못하였다.

세계의 1978년도 어분생산량 및 수출량은 77년도보다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1978년 1~4월중의 생산 및 수출실적을 감안하여 추정된 결과이다.

특히, 1978년도에는 칠레를 제외한 세계 주요어분생산국과 수출국의 생산 및 수출국의 생산 및 수출실적이 77년도에 비해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세계의 주요어분생산국과 수출국별로 생산 및 수출구성비를 보면 칠레, 아이슬란드·노르웨이·페루 및 남아연방 등 세계 5대어분생산국의 1977년도 어분생산량은 세계 총생산량의 38%를 차지하였으며, 수출량은 세계 총수출량의 77%를 차지하였다.

1978년 1~4월중 이들 제국의 생산량은 77년 동기대비 16% 감소되었으며, 수출량은 380천M/T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10% 감소하였다.

【어유】 세계의 1977년도 어유 생산량은 76년도보다 6% 감소한 893천M/T을 나타냈다.

그러나 1977년도 세계의 어유생산량 감소율이 어분생산량 감소율보다 적은 것은 페루의 어유생산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페루의 어유생산량이 증가한 것은 지금까지 어유수출량이 2~3%밖에 되지

않은 앤초비어를 주로 포획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어유수출량이 6~7%로 앤초비어보다 많은 고등어·정어리 등을 많이 포획한 데 기인된다. 그런데 고등어·정어리 등 어족이 페루 어획고의 60%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노르웨이의 1977년도 어유생산량은 224 M/T에 달하여 세계 최대어유 생산국으로 등장했으며, 아이슬란드도 76년도 생산량 71천M/T을 2배나 증가하는 생산 실적을 보였다.

그밖에, 세계 주요어유생산 및 수출국의 1977년도 어유생산량도 감소하였는데

### 월간양계는 당신이 독자이자 필자입니다

월간 양계는 우리주변의 여러가지 일들을 정책적인면, 기술분야, 업계정보, 유익성 기사, 미래지향적(교육적)기사, 그리고 오락적인 기사로 엮어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월간양계는 전체 양계인의 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책에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 체험수기, 새로운 정보 등 여러분 주변의 일을 적어 보내주세요.

글을 꼭 잘 써야만 되는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만이 우리에게 전달되면 족합니다.

기사 외에도 월간양계에 바라는 일들을 보내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보내실 곳은 100 서울특별시 중구 양동 44-28 대한양계협회 편집부

Tel 22-6917

여러분 항상 성원에 항상 감사합니다.

이후 남아연방 및 미국이 76년도보다 무려 39%, 33%나 격감현상을 나타냈다.

세계의 1977년도 어유수출량은 76년도보다 2% 증가한 579천M/T에 달하였는데 이는 일본 및 아이슬랜드의 어유수출량이 증가한데 기인된다.

특히, 일본은 어획량의 감소로 어분 및 어유생산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1977년도 어유수출량은 76년도보다 무려 62% 증가한 107천M/T에 달하였다.

이와같이 일본의 어유수출량이 증가한 것은 대두유 등 식물성유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어유재고량을 감축시키려는 조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이슬랜드의 1977년도 어유수출량은 어획고 증가에 힘입어 76년도보다 무려 137%가 증가한 71천M/T을 기록하였다.

그밖에 세계 수요어유수출국의 1977년도 어유수출량은 76년도보다 다소 감소하였다.

한편, 세계의 1978년도 어유생산량은 어분 생산량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다소 감소될 것이 예상된다.

세계의 어유수출량 역시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세계 주요어유수출국의 식물성유 선호경향에 따라 어유수출량 증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수출량감소폭은 생산량감소폭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페루는 격증하는 식물성유소비증가 추세에 따라 대두유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어 1978년도 어유수출량을 추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1977년도 세계 최대어유수출국이었던 노르웨이는 어유생산량 감소 및 정부당국의 국내어유소비증진책에 따라 1978년도 어유수출량은 77년도보다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1979년도 세계의 어분 및 어유

생산은 페루의 수산업이 활발한 회복세를 보이지 않는 한 1978년도 수준을 상회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각국의 어획고증가폭이 매년 크게 변하고, 최근 세계각국이 200해리 경제구역선포와 이 구역에서의 타국 어선에 대한 조업금지조치가 행하여짐에 따라 향후 세계의 어분 및 어유생산량을 예측하기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어분 및 어유가격】** 1977년도 세계의 어분가격은 어분 및 고단백분의 공급부족으로 1973년 이래 최고가격을 기록하였다.

1978년도 상반기에는 어분의 공급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으나 어분가격이 다소 하락하였다.

이것은 배합사료생산자들이 배합사료원료로 어분 대신 공급이 원활한 대두박을 사용함에 따라 어분의 수요가 다소 감퇴한데 기인한 것이다.

즉, 1978년 1~6월중 어분과 대두박의 가격비는 2.06배로 76년 동기보다 어분가격이 하락함으로써 가격비의 폭이 넓어졌다.

한편, 1977년도 세계의 어유가격은 M/T 당 472달러(유럽 C.I.F. 가격)로 최고가격을 기록하였던 74년도에 비해 다소 하락하였다.

1978년도 상반기중 어유가격은 1977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어유가격을 대두유가격과 비교하여 보면 크게 하락한 것이다.

즉, 1978년도 상반기중 어유가격은 77년 동기보다 7% 하락한 반면, 대두유가격 하락폭은 어유가격 하락폭보다 2%포인트나 낮은 5%에 불과하였다.